

어린이 환경보건 안전강화 사례 공유

제주에서 심포지엄 개최... 전북·제주·경남 환경보건센터 등 지역별 사례 소개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필요성·활성화 방안 제안... “지역 간 지속 소통 이어갈 것”

전북대학교가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손정우)는 지난 22일 제주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안전강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센터장 홍성철)와 경남환경보건센터(센터장 성주현)가 공동 개최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비롯

해 환경보건 분야 및 유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지역별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에 대한 사례발표와,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전북대학교가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는 지난 22일 제주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안전강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 제공>

먼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오금환 교육팀장이 ‘어린이 환경교육 사례 및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프로그램 협력 방안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 김소라 연구원은 ‘제주지역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현황 및 콘텐츠 소개’를 주제로 지역의 우수한 교육 체계를 소개했다.

또한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 김아라 사무국장은 ‘경상남도 지역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 박서현 사무국장은 ‘전북지역 환경보건 교육 현황과 환경보건 감사 양성과정’을, 의암초등학교 이동엽 교사는 ‘어린이 환경보건정책과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특히 손정우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경예방관리센터 이혜숙 예방교육팀장이 참여해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 박서현 사무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어린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지역 사회 인식 고취를 위한 합리적인 환경보건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여러 지역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역 어린이들의 환경보건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교사 참여 개발 미디어 교육자료 ‘눈길’

전북교육청,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배포 미디어 민주시민 역량 강화 목적으로 제작 애니메이션 자료 활용 수업활동 PPT 등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디어 교육자료인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을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교육자료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디어를 생산·활용하는 미디어 민주시민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이에 전북 교사들이 참여한 개발한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애니메이션 자료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수업활동 PPT, 교사용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에서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탑재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주요 콘텐츠로는 △미디어 리터러시란 △가짜뉴스 vs 진짜뉴스 △미디어 분별 △디지털 에티켓 △사이버 폭력 △미디어 생활 점검 △미디어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이 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미디어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길 바란다”면서 “이번에 보급된 콘텐츠와 연계한 수업지원 자료도 함께 개발해 교사들의 현장 활용성을 높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전 전북과 공동 ‘학습 멘토링 지원’ 전달식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단장 최현영)은 지난 23일 한국전력공사 전북지부(본부장 연원섭)와 공동으로 학습 멘토링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전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으로는 전주 덕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전국지역아동센터, 송천나눔지역아동센터로 총 9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전 직원들이 직접 나서 전기상식과 전기안전 관련 멘토링도 진행했다. 최현영 단장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에서 2년 연속 전주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한 학습 발달을 위해 학습지 지원 사업을 후원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도내 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은 지난 23일 한국전력공사 전북지부와 공동으로 학습 멘토링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역아동센터에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원 기관과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연원섭 전북본부장은 “지역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을 돕게 돼 뜻깊다”며 “취약 아동을 꾸준히 발굴·지원해 북

자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은 도내 287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평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 최종합격자 219명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3일 누리집(https://www.jbe.go.kr)을 통해 2024년 제2회 교육공무직인 신규 채용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종합격자는 △조리실무사 195명 △영양실무사 1명 △교무실무사 4명 △특수교육지도사 17명 △과학문화해설사 2명 등 모두 219명이다. 특히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조리실무사 정원을 대폭 늘려 총 195명을 채용했다.

최종합격자는 채용 후보자 등록 이후 9월 1일부터 각급 학교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공무직원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지역 검정고시 시험장 확대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국 시·도교육청 제출 사례 중 10건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역밀착형 검정고시 시험장 확대 운영’이 2024년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 중 10건을 선정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장 확대 운영’으로 기존 검정고시 시험장을 1개 권역(전주 권역)에서 6개(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

원, 진안 권역) 권역으로 확대·시행해 응시자의 편의를 증진했다. 특히 응시자들의 시험장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결시율이 낮아지고, 분청고시관리담당이 운영하는 시험운영전문인력풀을 시험 권역으로 분산 배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정고시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그동안 모든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고,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국기능경기대회 도내 직업계고 학생 75명 참가

자동차 정비 · 산업용드론제어 등 26개 종목... 대회는 3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30일 경북에서 열리는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도내 직업계고 학생 75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지역 간 숙련기술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고, 범국민적 숙련기술 우대풍토 조성 및 저변 확산을 통한 산업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개최

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단 1,75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지난 4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선발된 학생 75명이 자동차정비, 용접, 산업용드론제어, CNC밀링, 자동차차체수리, 요리 등 26개 종목에 출전한다. /장은성 기자

한편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선수에게는 상금과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권 출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기량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오늘 신규 조리실무사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9월 1일자로 공립유·초·중·특수학교에 배치되는 신규 조리실무사 17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에서는 학교급식 정책의 이해, 조리실무사로서의 기본 소양,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단체급식 조리 기본 등 학교급식 종사자로서 핵심역량 강화에 필요한 4개 교과목을 총 4시간으로 진행한다.

특히 전북 학교급식 정책 이해를 위한 안내와 함께 학교급식 현장 경험이 풍부한 영양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학교급식 위생관리(조리과정의 HACCP관리) △단체급식 조리의 기초 등에 대한 연수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신규 조리실무사로서의 기본역량과 직업의식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문가 특강도 마련됐다.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최일숙 교수가

‘소통과 협력을 위한 조리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명 의식 및 직무 소양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이번 연수는 신규 조리실무사들이 급식 현장에 첫발을 디딜 때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면서 “업무 관련 기본지식 외에도 다양한 연수를 운영해 ‘행복한 학교급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농생대, 무주서 농촌일손돕기 전개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들이 하절기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농촌 봉사활동을 나섰다.

이에 따르면 추병길 농생대학장을 비롯한 학생 70여 명으로 구성된 농촌봉사단 ‘하이’가 지난 21~23일 무주군 지역 7개 마을에 파견, 부족한 농가 일손을 도왔다.

봉사단은 마을 환경정리와 작물 수확 등 일손을 도우며 팍의 소중함을 배웠다.

추병길 농생대학장은 “이번 농촌봉사활동은 농업의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농부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농산업을 미래로 육성하고 있는 우리 농생대 학생들이 농산업을 중요성을 몸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불법촬영 카메라 ·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정읍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 정읍고 등 2곳서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 학교업무지원센터는 지난 23일 정읍 관내 학교 2곳을 방문해 각각 불법촬영카메라 점검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은 불법촬영 성범죄 발생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출몰한 학교업무지원센터에서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업무로 관내 학교 2곳(정읍고, 정읍여고)을 선별해 우선 점검했다.

이날 학교업무지원센터장 팀장 1명과 담당주무관 3명이 센터 보유의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해 학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직접 점검했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촬영카메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은 학교 주변 유해시설이 있는지 정기점검하고 위반시설을 적발한 경우에는 학교가 즉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 업무로,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학교업무지원센터에서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담당자의 점검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용훈 교육장은 “센터의 불법촬영



정읍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는 지난 23일 정읍 관내 학교 2곳을 방문해 각각 불법촬영카메라 점검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정읍교육지원청 제공>

카메라 점검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지원이 담당 교사의 업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센터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김대환 기자